

# 담양의 풍광·휴양림 동시에 즐긴다

### 월산면에 웰빙체험지구 조성... 도농 교류·소통

### 2016년까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산촌마을 사업

‘달피골’ 담양군 월산면에 휴양·웰빙 체험지구로 변모한다. 담양군 서북쪽 관문에 위치한 월산면은 그동안 담양의 중심 개발 축에서 소외됐으나, 수려한 농촌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웰빙체험 명소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담양군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기

반으로 하는 ‘월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과 ‘산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을 오는 2016년까지 추진한다. 월산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은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월산리 외 3개 리(里)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찜질방과 노약자 목욕탕, 다용도실 등 지역활성화 센터 건립 ▲시루산 건강 숲길·꽃

살 경기장 등 운동휴양시설 ▲농촌 체류형 농장·딸기잼 가공 시설 등 체험관광 시설 ▲중월천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 융합 가곡권역에 꽃내음 체험관과 수생식물 생태 학습장을 조성한다. 국지도 15호선에 접하는 화방리에는 ‘물구십리 희망만들기’를 추진한다. 주말체험농장과 눈썰매장, 조롱박 공원, 서바이벌 게임장 등 도시민을 유치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골드팜’(Gold Farm)을 내년부터 조

성하기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군은 이와 같은 권역별 사업을 통해 ‘꽃차마을’로 유명한 신계리 농촌 체험마을과 머무람 다래랑 꽃차 체험장 등과 연계해 ‘청정골 월산’만의 특색 있고 향기로운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선기 월산면장은 “월산면을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청소년들이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잊혀져 가는 농경·농촌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화순 세량제... 숲도 호수도 아름다워라**  
23일 아침 화순군 화순읍 세량저수지를 찾은 사진작가들이 봄풍경 촬영에 몰두하고 있다. 세량제는 만개한 산벚꽃과 조팝나무, 물안개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화순=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농민-화순경찰, 화합의 배구 한판

### 상호이해증진·유대강화, 50여명 참석 체육행사

화순경찰과 지역농민들이 체육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과 화합에 나섰다. 화순경찰서(서장 윤영성)와 화순군농민회(회장 노종진)는 지난 22일 화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족구 등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상호 대립관계에 있던 경찰과 농민회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화순경찰과 군 농민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 2회(봄·가을) 정기 체육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올 가을 개최될 2회 행사부터는 농민 관련 기관간



체육 포함해 확대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편 화순경찰서는 오는 30일 춘양면 화림리 5개 농가에서 고추 지지대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화순경찰과 군 농민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 2회(봄·가을) 정기 체육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올 가을 개최될 2회 행사부터는 농민 관련 기관간

## 장흥서 전국 국악인들의 축제

### 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28~29일 문예회관

‘제 14회 장흥 전통 가·무·악(歌·舞·樂) 전국제전’이 오는 28~29일 이틀간 장흥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장흥 전통 가·무·악 제전은 최고상인 대통령상(상금 1500만원)을 비롯해 5개 부문 80명에게 시상하고 있어 전국의 실력 있는 국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오후 3시부터 장흥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올려지는 축하공연은 전년도 대통령상 수상자인 홍진경과 인간문화재 및 명인 명창들이 출연한다.

지난해부터 제정된 ‘장남진 장흥 국악인상’ 수상자는 장흥출신으로 국악발전에 공이 있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예술혼을 표현하는 이영애(우륵 가야금대회 대통령상 수상)가 선정됐다. 그동안 전국대회의 대통령상 수상자로는 유명애(판소리), 이영애(가야금 병창)·문효심(판소리) 등 많은 국악인을 배출했다. 한편 참가신청은 24일 오후 5시까지 장흥군(061-860-0358)이나 판소리 고보존회(02-725-9939)로 하면 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나주시 부채 크게 줄었다

### 지방채 689억원→435억원, 채무비율 7.54% 불과

민선 5기 2년간 나주시 지방채가 689억원에서 43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 지방채는 지난해말 기준 435억원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54%이다. 지방채중 국비상환 부담금 21억원과 회수 가능한 국민 임대산단 조성사업 101억원만 제외하면 실질 채무액은 310억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채무비율은 5.4%로 떨어진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채무 위기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심각단계’

(40%)와 ‘주의단계’(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시는 민선 5기 출범이후 지난 2년 동안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해 지난 2010년 103억원, 2011년 148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 부채비율을 대폭 줄였다. 또 주요 건설사업비의 경우 우선순위를 정한 뒤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롤 다운제’를 시행하고, 행사운영비와 일반수용비 등 경성경비도 부서별 목표액을 정하고 자체적인 절감을 통해 건전재정 기반을 다

졌다. 시의 이같은 노력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임성훈 시장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교훈으로 삼아 취·등용세와 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특성상 전시장·선심상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제50회 전남체전’을 앞두고 모두 3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채무액이 686억원으로 급증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 전 북



## 실학자 신경준 선생 업적 조명한다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山自分水巖).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이자 실학자인 여암 신경준(1712~1781) 선생은 지리서 ‘산경표’(山經表)를 통해 우리 땅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인 백두대간과 1개 정간(正幹), 호남정맥 등 13개 정맥(正脈)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는 우리나라 전통 지리학 개념을 산맥으로 왜곡시켰고,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답습해 왔다. 1980년 고지도 연구가 이우형씨가 ‘산경표’를 발굴하며 비로소 다시

### 10월5일 순창서 탄신 300주년 국제 학술대회 사학·지리학 등 5개분야 주제발표·종합토론

빛을 보게 된다. 순창군과 전북대학교는 오는 10월 5일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신경준 선생 탄신 30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학계 관계자와 향토사학자·전국 산악인·관광해설사를 비롯해 순창문화원 및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학, 문학, 어학, 과학, 지리학분야 등 5개분야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사학분야(한국과학 기술원 고동환 교수) ▲문학분야(전남대 박명희 교수) ▲어학분야(도쿄외국어대학 이토 히데토 교수) ▲과

학분야(충북대 박관수 교수) ▲지리학 분야(성신여대 양보경 교수)로 나눠 진행된다. 군은 남산마을 입구 여암선생의 연못 정비 ▲신경준선생 기념관 조성 ▲신경준선생 탄신 300주년 기념 교류제 ▲강천산 등반대회 등 3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여암 신경준 선생은 ‘산경표’, ‘고지도’, ‘동국여지도’ 등을 저술했고, 대표적인 저술인 ‘훈민정음 운해’를 통해 우리 언어 연구의 높은 수준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단신

### 고령자 지원사업 3억9000만원 국비 지원

전북도의 ‘한옥마을 민박체험 및 전통 주 생산 판매사업’(나누는 사람들)과 ‘친환경 농산물 선별·가공사업’(김제 지평선 배영농조합법인)이 보건복지부 주관의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모두 3억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나누는 사람들은 한옥체험 민박과 전통주 및 한옥 비빔밥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20여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김제 지평선 배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가 계약재배사업으로 50여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김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출범

김제시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나섰다. 네트워크는 최근 옛 문화예술회관 문화사랑방에서 40명의 동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김희곤(85) 서목회 대

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음악·전통·미술·무용·공예·서예·사진 등 동호회 장르별로 7개 분야 위원회가 구성돼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설립취지 채택 및 정관을 심의, 법인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

### 남원 수출용 멜론 착과기술 실증사업 착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 과육원은 현장 공동 연구사업 일환으로 수출에 적합한 멜론 생산을 위한 착과기술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사업은 멜론 주산지인 송동면 세전리 친환경 멜론재

배 2농가에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된다. 센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1주2과 멜론 생산시 필요한 적정 유인방법 및 시비량·유인방법 등 수출에 적합한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종합 재배기술을 접목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 정읍 수해복구공사 견실시공 연석회의

정읍시는 23일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견실시공을 위해 분청 및 사업소의 시설 및 녹지직 공무원 76명을 수해복구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감독공무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녹색도시 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해 분야별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공사중인 127건을 1인 1사업 담당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내장산~강천사 연결도로 올 하반기 조기개통

정읍 내장산과 순창 강천사를 잇는 연결도로가 올 하반기 조기개통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백양사~내장산~강천산을 직접 연결하는 순창~정읍간(길이 10.64km) 국지도 확·포장 공사기간을 올 11월말 조기개통한다. 현재 공정률은 95%이다. 도는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전남도 경계)부터 정읍 내장산 경유 순창군 생치면 종곡리간 국도 1호선과 국도 29호선을 우회할 수 있는 연결노선을 2개 구간으로 나눠 지난 200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도는 조기개통을 위해 지난해까지 1063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도 111억원을 확보·집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학교폭력 마음놓고 신고하세요”

### 김제경찰 시립도서관앞에 신고센터 개소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3일 김제 시립도서관앞에서 ‘학교폭력 이동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김제경찰은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경찰관서에 찾아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로 선정, 학교폭력 이동신고센터를 개소했다. 김제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오전·오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상담(신고)접수 ▲아동·청소년

일탈행위 발견시 계도 및 보호자인계 ▲민·관·경 ‘지평선 프로미순찰대’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경찰관이 근무중일 경우는 직접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외근 근무 중에는 무다이얼링 신고전화와 신고함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상주 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청정지역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학교·기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



### 물렸거라~ 신관사도 부임행차시다

지난 22일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신관사도 부임행차’를 지켜보고 있다. 남원시는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0월(7~8월 하절기 제외)까지 매주 토·일요일 신관사도 부임행차를 재연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